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 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 264호 【루게 제 26138호】 주제 107 (2018)년 9월 21일 (금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 사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삼천리강토를 한 지맥으로
안고 거연히 솟아 빛나는 민족
의 성산 백두산이 반만년민족사
에 특기할 격동의 순간을 맞이
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온 겨레
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남수뇌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시고 9월 20일 오전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
대통령내외분과 함께 천지에
내려가시여 호반을 거니시며
백두산에 오른 소감을 나누시
였다.
천지호반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
대통령내외분과 함께 또다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백두산의 장군봉과 천지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와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우리측 간부들과 남측수행원들이 함께
올랐다.
이 땅의 일반산악을 거느린 조종의 산 백두산
은 하늘높이 솟아오른 뾰부리마다에 평묘한
정기를 내뿜으며 자기의 용자를 한껏 드러내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백두련봉에서 제일 높은
장군봉마루에 서시여 웅건장중한 령봉들의
거창한 산악미와 거울처럼 맑고 푸른 천지
호반의 장쾌한 전경, 민족의 혈맥인양
련련히 뻗어간 천리수해를 오래도록 부감
하시였다.
문재인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넋과 기상이 어

린 성산에 오른 감격을 피력하면서 오늘의 첫걸
음이 온 겨레가 모두 찾는 새시대로 이어질것이
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백두산정에 오른 력사의 순간을 기념
하여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였다.
남측수행원들도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에

호반에서는 북과 남의 인사들이 서로 어울
리며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펼쳐
졌다.
북남수뇌분들께서 민족의 상징인 백두산에
함께 오르시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
시대에 뚜렷한 자욱을 아로새기신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본사정치보도단

